공사장 그리고 콘크리트

정태일
강동건설(주) 대표이사 · 시인

양회를 실은 트럭이
희뿌연 먼지를 피우며 들어선다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들린다
<타향살이> 구성지게 불러주던
박씨도 삽자루를 놓고
밀린 노임에 며칠째 울상이다
흙먼지 속에 양미간을 찌푸리며
지금 내가 골똘히 들여다보는 것은
도면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축도인가
포크레인도 떠날 시간을 기다리며
검은 그림자 드리우고 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마무리집시다
해소병으로 쿨럭이는 목수 배씨의 등을 두드리지만
나는 알고 있다
달아난 기업주는 깜깜 무소식이고
이번 어음도 여지없이 부도가 날 것이다
줄담배를 피워 물지만
농협 연체이자 지급날이라며

노임을 졸라대던 이씨가
마침내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른다
식당 아지매는 외상 장부를 내민다
은행도 부도 나는 세상인데 누굴 믿어요
이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도 못들은 척 못들어도 들은 척
여기저기 전화를 걸면서
급전도 하루 이틀이지
어쩌자고 이 공사를 끝내려는 걸까

나는 미궁을 헤매고 있는데
옷을 갈아 입은 콘크리트공 김씨의 다리엔
어느새 시멘트 물이 올라 있다
아우성 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고
공사장엔 어느덧 어둠이 깔린다
외상값에 몸이 묶인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현장사무소 최씨가 안쓰러운 듯 한마디 건넨다
그의 책상 위 먼지 뽀얀 달력엔
얼마 남지 않은 막내아들 등록금 납부일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다.

콘크리트

작은 포대의 세멘트 가루는
폴폴 날리어서
모래 자갈 물들과 몸을 섞는다
강한 응집력과 뜨거운 정열의 수화작용
표면에 송글송글 맺히는
물거품 방울들
한 주일 동안의 기다림을 거쳐서
돌처럼 굳어지는 침묵
우리들은 그의 몸에 쾅쾅 못도 박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한다